

# 선체 93곳 와이어 연결 2.3km 옮긴 후 플로팅 독 위로

## 세월호 측면서 동태 인양 어떻게

정부가 22일 세월호 인양 결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물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됐다.

조류가 우리나라에서 해남 울돌목 다음으로 빠른 평균수도 수심 약 44m 지점에 벵머리를 동쪽 53도 방향으로 두고 좌측면이 바닥에 닿게 누워있는 세월호. 6825t급인 세월호는 침몰 후 조류·필 흡착력 등을 고려했을 때 수중 8400t, 물 위에서는 약 1만 2000t로 추정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 사례가 없기에 세월호 인양 결정 자체가 도전이다. 불확실성 또한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측면서 동태 인양' 가능할까=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는 낙담여 동안 연구를 통해 해상 크레인인과 플로팅 독을 투입해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두 동강 난 안전함을 인양할 때처럼 세월호를 절단하면 인양작업이 다소 수월해지지만 기술검토 TF는 실종자 9명을 수습하는데 중점을 두고 유실 가능성이 있는 절단법은 배제했다. 또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더 위험하다며 좌측으로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인양하자는 의견이다.

구체적 방법은 (1)세월호 우측면에 잠수사들이 구멍을 뚫어 내부 93개 인양점을 물 위 크레인에 와이어로 연결 (2)크레인 두 대로 3m 들어 올림 (3)동거처도 쪽 수심 30m 지점까지 2.3km 이동 (4)플로팅 독 위에 올리고 크레인 철수 후 물 위로 부양하는 방식이다.

외부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로는 성공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6천t급 통째 인양 세계 유례 없어 전문가들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

### 인양업체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 수중작업 내년봄에나 착수 가능 크레인 2대 하루 임대료만 10억

하지만 세월호의 우측면에 구멍을 뚫어 선내 93개의 인양점을 연결하는 작업에 걱정이 많다. 인양점 1개를 확보하는데 4명의 잠수사를 투입해 3~4일 정도 걸린다는 계산인데, 희생자 수습 때도 그랬듯이 빠른 유속과 혼탁한 시야 때문에 수중작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93개의 와이어가 꼬이거나 끊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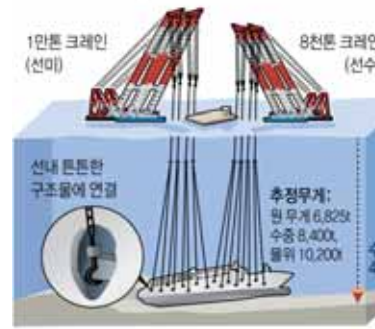
기술검토 TF 역시 "우리가 내놓은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위험성이 적다는 의미일 뿐, 인양업체 선정 및 작업 설계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양점 파괴나 휘어짐으로 인해 반토막이 나가거나 와이어 끊어짐에 따른 해저면 추락 등 2차 사고 위험이 공존하기에 기술검토 TF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는 9월 중 현장작업 착수할 듯=해수부는 곧바로 세월호 선체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기술제안 요청서를 마련해 인양업체 선정에 들어간다.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인양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컨소시엄이 구성될 전망이다. 업체가 선정되면 약 석 달간 세월호 인양 현장 조사를 통해 인양작업을 설계하게 된다. 이때 자재·장비 수급, 해상장비 고정용 블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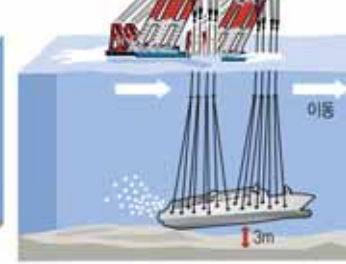
## '세월호' 인양 작업 어떻게 하나

선체 내부 체인 연결 및 인양  
우측면에 93개의 구멍을 뚫은 후 내부 구조물에 와이어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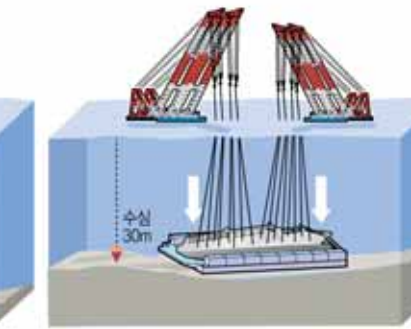


기간 12~18개월, 비용 1천억~1천500억원 소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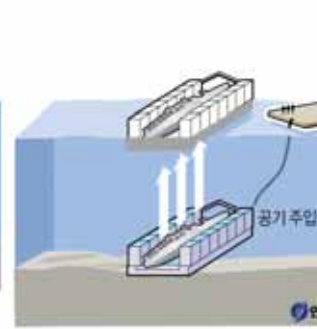
수심 30m 지역으로 이동  
동거처도 앞쪽 수심 30m 지역으로 2.5~3km 이동



플로팅 독에 올림  
옆으로 누운 상태로 플로팅 독 위에 올리고 크레인 철수



수면 위 독 부양으로 인양 완료  
플로팅 독에 공기를 채워 수면 위로 부양



작, 해상작업기지 설치, 잔존유 제거작업은 병행할 수 있기에 9월부터는 현장작업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세월호에 구멍을 뚫고 인양점에 잠수사들이 와이어를 연결하는 등 수중 작업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11월 말~1월은 잠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내년 봄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해상크레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의 1만t급 'HYUNDAI-10000'호와 삼성중공업의 8천t급 '삼성 5호'가 동원되며, 와이어 연결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크레인 두 대는 하루 임대료 10억원씩, 30일 정도 사용이 예상된다. 플로팅 독은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물산 등 여러 곳에서 보유하고 있어 인양업체가 어느 회사의 플로팅독을 그대로 또는 개조해 사용할지 선택해야 한다.

## 유가족협의회·여야 정치권 "세월호 인양 결정 환영"

정부가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이르면 9월 현장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세월호 가족들과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인양하겠다고 한지 6개월만의 공식 선언이지만 이제라도 인양을 공식 선언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인양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양 과정 중 실종자 유실 방지나 선체 손상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인양보다 인

양 시기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해야 하므로 (법에 정해진) 활동 기간에 유의미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인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정부는 인양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세월호 인양은 당연한 것인데도 참사 1년이 지난 후에야 결정됐다"면서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대통령, 개혁 드라이브로 난국 돌파?

## 페루·칠레서 '사회개혁' 잇단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중 잇따라 '사회 개혁'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동포 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여러 적폐를 해결하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해 반드시 경제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페루 동포 간담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적폐 해소와 사회적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순방외교 일정 가운데

동포 간담회가 국내 현안과 관련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감안하면 '사회 개혁'이란 단어를 사용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회 개혁'이란 단어를 이번엔 처음으로 사용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사회 개혁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성완중 리스트' 파문 등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기존에 언급한 '혁신'의 수준을 넘어,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성완중 파문'으로 여론이 눈에 띄게 악화하고 국정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팽배한 가운데 개혁이라는 강도 높은 단어의 선택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반영했다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회개혁은 정치개혁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국정 전반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인세부라더**

BOHAE

강고·자녀간 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문란이나 직업이나 사교 발생을 높입니다

## 에코의 외사랑·나르시스의 자기에... 외로움의 본질



(111) 수선화

"울지 마라/외로우니까 사람이다/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산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음으로 내려온다..." <정호승 작 '수선화에게' 중에서>

봄에 만나는 꽃들은 모두 기적과도 같아 큰 감동을 주지만, 올해는 유독 수선화에 마음이 끌린다. 혹한을 견뎌 알뿌리에서 새순과 함께 피어나는 갓노란 꽃망울은 지상에 내려앉은 별이 이렇게 예뻐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인의 노래처럼 수선화는 외로움과 이미지가 겹쳐진다. 수선화 꽃의 유래 때문일 것이다. 나르시스는 신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젊은이로 불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그곳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죽고, 그 자리에 수선화가 피어났다고 전한다.

범의학자 문국진교수는 저서 '그림 속 사람의 권리'에서 "외로움의 본질은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는 감정이며 이것이 지나치면 자기 밖에 위할 줄 모르는 인격 장애를 초래하게 되



워터하우스 작 '에코와 나르시스'

는데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즘'이라 한다"고 분석한다.

자기애(나르시시즘)의 상징인 나르시스는 서양미술에 자주 등장한다. 영국의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1844~1917)의 '에코와 나르시스'(1903년 작)는 나르시스를 사랑했던 에코, 에코를 외면한 채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끌어안으려는 나르시스와 수선화가 한 화면에 어우러져 있다.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랑의 말을 전하지 못하는 에코도, 자기 이외의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나르시스도, 물가에 앉아있는 수선화도 한없이 외로워 보인다.

"미술은 직관이고, 직관은 표현이다"라고 했던 이탈리아의 역사철학자 크로체와 정이처럼 미술은 직관된 표상을 향한 적절한 표현의 지인 것 같다. 인류의 희로애락과 전설, 숭한 사연들이 화가의 붓끝으로 다채롭게 묘사되는 것을 보면,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